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



방과후학교 2017 7월호 온라인 Newsletter

발행인 : 김재춘 | 편집인 : 박승재 | 편집담당 : 전보미



CONT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01 전문가 칼럼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 역사적 변천과 전망



02,03 현장 속 방과후학교

- 전공연구 및 진로적성 계발을 위한 일반고 연합 전공연구 방과후학교
- 학교평생교육으로 지역과 학교가 소통하는 인재군



04 돌봄교실 이야기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은 공존과 성장으로!



05 방과후학교 소식

- 방과후학교 강사 온라인 연수
- 2017 방과후학교 국제포럼



06 알림

- 뉴스레터 원고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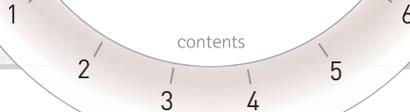
구독 신청 방법

2017년부터는 격월로 발간됩니다.

격월 5일에 발간되는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에서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신청 : www.afterschool.go.kr Click!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역사적 변천과 전망¹⁾

경남대학교 교수²⁾ | 김성열

I. 왜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를 논의하는가?



학교와 지역사회는 관계를 왜 맺어야 하는가? 학교와 사회는 서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는 한 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을 키워냄으로써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사회는 학교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한다.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학교는 사회로부터 결코 고립된 섬이 될 수 없다.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는 인적 자원의 교류, 정보의 교류, 물적 교류, 사업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관계에서 주도권은 학교가 가질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가질 수도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맺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동네나 마을, 읍·면이나 시·군, 시·도로 한정하는 게 적절할 듯하다. 지역사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이 학교와 직·간접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학교 및 지역의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오상철·이화진·장경숙, 2012:19).



II. 역사 속의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 학교 우위의 지역사회학교 모형

1. 지역사회학교 개념의 도입과 소개

우리 사회에 ‘지역사회학교’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 초였다. 6.25 전쟁으로 인한 교육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전조사를 담당하였던 UNESCO-UNKRA 한국교육사절단이 한국의 교육을 재건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학교의 건설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학교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관계가 깊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박용헌·이상주·김영찬, 1979). 지역사회학교는 주민들이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스스로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조적인 노력을 돕는 학교로 인식되었다.

교육행정 당국과 학자들, 일선학교들은 UNESCO-UNKRA 교육사절단의 건의와 교육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입어 지역사회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56년에는 경기도가 “지역사회학교를 건설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사회학교운동을 전개하였다. 1959년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같은 주제로 주간행사를 열었고, 한국교육학회도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을 연차학술대회의 주제로 내세웠다(박용헌·이상주·김영찬, 1979). 1950년대는 이렇게 지역사회학교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1) 한국방과후학교학회 학술대회(성균관대학교, 2017.4.15.)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적절하게 요약한 것임. 인용주는 표기하였으나, 참고문헌은 지면 제약으로 생략함.

2)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contents

1	2	3	4	5	6
---	---	---	---	---	---

2. 향토학교

4.19후 들어선 민주당 정부는 지역사회학교를 향토학교로 바꾸어 추진하였다. 향토학교는 지역사회학교 개념을 우리 식으로 바꾼 것이다. 향토학교는 5.16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정부에 의해서도 60년대 말까지 계속하여 추진되었다.

그 당시 문교부가 발간한 『향토학교』란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향토학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추리면 다음과 같다(문교 40년사, 263-269). 우선, 향토학교는 직접으로 또는 인간형성을 통하여 사회의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향토사회의 개선을 위한 중심센터가 된다. 둘째, 향토학교는 그것이 위치한 향토 사회의 특수한 필요에 부응한다. 전통적인 학교가 그것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내용을 가르친다면 향토학교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교육내용에 반영한다. 셋째, 향토학교는 지역사회가 확보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 넷째, 향토학교는 교육의 공간을 지역사회로 확장한다(오천석, 1975).

향토학교가 민주당 정부에 이어 박정희 정부로까지 이어진 데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밀접하게 연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작용하였다(문교 40년사, 265). 향토학교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문교 30년사, 248). 박정희대통령도 1967년 1월 24일 전국교육자에게 ‘앞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사회 건설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학교적인 성격의 학교를 더욱 육성·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요지의 보내는 말을 보냈다.

향토학교는 학교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지만,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문교 40년사, 269).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특정한 기념일이나 사건을 전후하여 계기교육이나 인정도서인 지역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는데, 이는 향토학교의 현재적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3. 새마을학교와 새마을 교육운동

향토학교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교육으로 전환된다. 박정희정부는 1972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향토학교를 새마을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 운동이 지향하는 국가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었다(김신일·박용현·진원중, 1983).

학교는 새마을학교로서 새마을교육 추진과정에서 문화센터, 체육·보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새마을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정신계몽교육과 지역사회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요구받았다(문교 30년사, 251-252). 새마을 학교는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개선과 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학교우위 관계 모형이다.

III. 전망 : 상호 지원 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 모형

역사 속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학교는 그러한 역할을 떠맡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학교 우위의 지역사회 학교 모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향토학교와 새마을학교로 존재하였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학교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교사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진 집단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 가능했던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보다 더 나은 기관이 많고 교원들의 학력이 가장 높지 않으며 그들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오늘 날에는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계몽과 교육,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개선과 발전이 사실상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 2 3 4 5 6

contents

현 단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각 지역사회에 소재한 학교들을 명문 학교로 만드는 노력을 하거나 통합 또는 폐교 예정인 소규모 학교를 특색있는 학교로 살려 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기관 또는 전문가 풀을 확장하거나,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사례 등은 지역사회의 자원이 학교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며, 이를 '지역사회 자원 투입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역사속의 학교나 지역사회 관계 모형 중 학교우위의 지역사회학교 모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학교는 지역사회보다 더 이상 여러 면에서 나은 기관이 아니다. 또한 학교는 더 이상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동원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도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는 학교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지원받아야 하는 관계여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학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자율적이어야 한다. 이런 관계를 한 마디로 '상호 지원 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 모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맺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상호 제공·지원하면서 함께 활용하는 관계여야 할 것이다.





전공연구 및 진로적성 개발을 위한 일반고 연합 전공연구 방과후학교

● 서울성심여자고등학교 교사 | 강석문

전공연구 및 진로적성 개발을 위한 지속적 교육 활동



서울 성심여자고등학교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로서 독서·토론 교육, 다양한 학과별 프로그램의 학문 교육과, 성숙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인격 형성 교육의 터전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교에서는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진로와 전공에 대해 내실 있게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일회성으로 그치기 쉬운 진로 체험 활동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기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커졌다. 이에 따라 본교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모두 담기 어려운 ‘지속적인 진로, 진학 교육’의 물꼬를 트고자, 학생들의 자발성을 보장하면서도 전공연구 및 진로적성 개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공연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토요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며, 하나의 강좌는 15시간(3시간씩 5회 수업)으로 구성된다.

맞춤형 전공연구 심화 활동

전공연구 방과후학교는 진로와 전공 탐색 과정이 단순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넘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을 높이는 과정이

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부나 학과의 전공 적합성을 심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막연한 관심과 흥미 위주의 진로 탐색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희망 전공과의 연계된 학습을 함으로써 관심 진로와 적성 분야를 탐색하고 있다. 전공연구 방과후학교에서는 전공 영역별로 10명 내외의 소규모 강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토론과 발표, 실험과 실습 방식의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전공연구 방과후학교에서는 인문, 어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생활 과학, 예체능 등의 큰 영역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세부 전공과 진로 영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학기에 개설된 강좌로는 ‘역사 사료의 분석과 탐구’, ‘일본 문화의 이해’, ‘통합의 인문학’, ‘모의 법정 연구’, ‘세계 정치 외교의 역사와 오늘날의 지구화’, ‘게임으로 배우는 경제경영’, ‘모의 유엔’, ‘영유아를 위한 색깔 악보 만들기와 노래 지도’, ‘다양한 수학적 원리 탐구’, ‘지오지브라 기초에서 활용까지’, ‘미래의 과학자로서 과학보고서 작성하고 발표하기’, ‘생물학 기초 이론과 실험실습’, ‘분자생물학 기초와 가상 재조합 DNA 제작 연습’, ‘화장품을 해석하다’, ‘전자공학입문과 로보틱스’, ‘보건영양역학과 식품영양논문학습반’, ‘음악 치료의 이해’, ‘동시대 미술 작품 제작의 경향 연구 및 작품 제작’, ‘패션과 이슈’, ‘체육전공 실기반’ 등이 있다. 또한 전공연구 강좌들과 함께 ‘커피 탐구 및 커피바리스타 실무 실습반’, ‘한식 조리 실습반’, ‘양식 조리 실습반’ 등의 진로 적성 개발을 위한 수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1학기에 운영한



강좌 수는 62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전공연구 심화활동의 기회가 되었다.

	2015년 2학기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2017년 1학기
총 강좌 수	37	49	50	62

용산구 일반고 7개교 연합을 통한 운영

기존에 단위 학교 내에서는 같은 관심 전공 영역의 학생들이 소수여서 전공연구 강좌를 개설하기 어려웠다. 인근 학교와 연합하여 강좌별 수강 최소 인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 일반고 연합 전공연구 방과후학교'는 성심여자고등학교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용산구의 일반고 7개교(배문고, 보성여고, 성심여고, 신광여고, 오산고, 용산고, 중경고) 학생들이 참여한다. 2017년 1학기에는 7개교 1,02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참여 인원	합	본교	A고	B고	C고	D고	E고	F고
2015년 2학기	562	173	67	87	39	55	103	38
2016년 1학기	760	257	93	116	32	128	95	39
2016년 2학기	737	219	154	109	52	116	63	24
2017년 1학기	1,023	219	123	150	52	146	279	54

전공연구 방과후학교는 용산구청을 통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지원받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교에서 총괄하여 제반 행정 업무를 운영하되, 방과후학교의 수업 장소를 본교로 한정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점차 용산구 연합 학교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7년 1학기에는 성심여고, 보성여고, 오산고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인근 대학교의 지원을 통해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2017년 1학기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아두이노로 배우는

<2017년 1학기 수업 장소별 강좌 수>

구분	수업 장소	강좌 수
전공 연구	성심여자고등학교	35
	보성여자고등학교	12
	오산고등학교	5
	중앙대학교	2
	숙명여자대학교	5
	과학동아천문대	1
진로 적성	한국커피교육센터	1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1
총 강좌 수		62

코딩의 세계', '다이나믹셀을 이용한 로봇 기초 수업', '내가 만드는 3D 프린팅',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VR 기초 이론과 체험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고, 중앙대학교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DIY 강좌'와 '스크래치로 시작하는 SW 프로그래밍' 수업이 운영되었다. 또한 과학동아천문대,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커피교육센터 등 지역 교육기관과 본교와의 위탁 협약을 통해 내실 있는 진로적성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우수 강사 인력 풀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 운영

현재 본교에서는 전공연구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강사진은 본교 교사 외에도 용산구 7개교 교사, 혹은 다른 지역의 우수 교사, 대학 강사,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인력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강사진은 배제하고 있다. 또한 외부 강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 구비 서류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전공연구 방과후학교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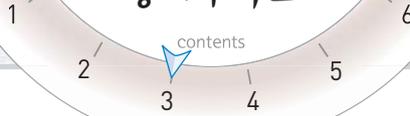


학생들의 성장과 높은 만족도

전공연구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한 학생, 선생님,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또한 전공연구 방과후학교는 고교 진학을 위한 학교 탐색을 하고 있는 예비 고등학생, 학부모가 본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학교에서도 본교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전공연구 방과후학교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대학 입시에 도전한 학생들이 면접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고 한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맞는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면서 보여주는 진지한 모습과

발전 과정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또한 전공연구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되면서, 학교의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정규 교과의 수업 시간과 동아리 활동 등에서 과정 중심의 활동을 하는 사례가 더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계기로 하여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성심여고에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성심여자고등학교가 학문 교육, 창의인성 교육, 진로진학 지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전공연구 방과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이유이다.





학교평생교육으로 지역과 학교가 소통하는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청 주무관 | 이 증 속



함께 고민하다

인구 3만2천의 작은 마을 인제군에는 분교를 포함한 18개 초등학교, 6개의 중학교, 4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다른 소규모 농촌 학교의 고민과 같이 인제군도 지역 학생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교육 여건이 좋은 인근 학교 진학으로 인해 지역을 이탈하고 있는 학생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제군에서는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재정 지원이 불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돌봄의 기능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대체하고 도시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인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지역의 평생교육과 함께하다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만 같았던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인제군,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역할 분담을 통해 평생교육법제29조에 의거 "학교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인제군은 2013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및 지역강사들의 DB가 이미 구축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방과후 담당 교사들에게 강사풀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방과후학교 참여 강사들의 강사비 지출과 계약이 이루어진 강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성인지교육 등 기본교육을 통해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제군과 학교를 연계하는 중간 매개체로서 학교 평생교육을 지도 감독하고 학교의 의견 및 어려움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학교의 경우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기획 권한을 학교에 부여함으로써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처음 시작한 학교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29개교, 387개 프로그램에 7,882명이 참여하였으며, 2017년에는 6월 현재 28개교, 285개 프로그램에 4,769명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자 자격증반



컴퓨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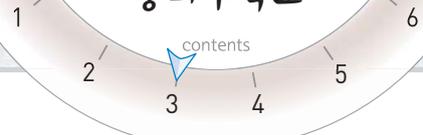


서예



바둑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등의 문화예술 교육부터 영어, 한자, 과학실험 등의 학력보완 프로그램, 서예, 바둑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제과제빵 자격증반, 바리스타 자격증반 등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강사 보수 교육, 강사 평가 등 강사 역량 강화를 통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작은 학교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들이 증가한 사례가 있는데, 인제군 북면 한계초등학교는 합창, 골프 등의 방과 후 학교 특색교육을 통해 2013년 20여명이었던 학생이 2016년에는 50명으로 학생 수가 크게 증가 하였다.

함께 성장하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의 각 사회·단체·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교내 행사 외에도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지난해 한계초등학교에서는 2016년 한마음 합창대회 금상을 수상하였고, 인제초등학교에서는 2016년 강원도 어린이 연극축제 대청봉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평생학습축제, 합강제 등 지역의 축제에서도 참가하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었다.



방과후 프로그램 공연



방과후 프로그램 체험부스 운영

강원도민일보

2016년 10월 11일 (화)
13면 강원



인제 방과후 학교 박람회 인제 방과후학교 박람회가 지난 8.9일 하늘내린센터에서 대취타 공연 등 공연분야 12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인제 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세현) 주최로 열렸다.
6.6 X 5.1 cm

보도자료

이러한 학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상생효과는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방과후학교 담당 선생님들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강사계약 등의 행정업무에서 해방되었으며, 군에서 안내한 강사 정보를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 수요를 파악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강사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듯 인제군은 학교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육 공동체 형성 및 소통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도 방과 후 학교 만족도는 2015년에 87%에서 2016년 92%로 크게 향상 되었다

향후 인제군은 학교의 교육이 학교와 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형태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학교의 평생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은 공존과 성장으로!

● 서울전농초등학교 돌봄전담사 | 김 경 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농 초등학교 주변은 최근 3년간의 재개발로 인해 신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특성과 학생, 학부모의 기대 및 욕구 변화에 따른 운영을 하는 초등돌봄교실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체험형 프로그램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생관리, 심리적 안정 등의 정서적 지원을 비롯하여 위기 아동 및 개별적인 개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전농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특성은 여러 기관, 단체등과 동아리, 개인 봉사자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상생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농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온 세대에 걸친 지역 내 동아리부터 전문직봉사자들과 학부모 재능기부 등의 활동 역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고 본다.

먼저 가방 놓고 조용히 책 읽으며 기다려야지!” 라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이 아이는 나중에 멋지고 커다란 입체왕스티커를 하나 주리라 생각하며 아이들과의 즐거운 일과가 시작된다.

매일 운영되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들은 돌봄전담사와 지역협력을 통한 각 분야 전문 강사님들과 함께 진행한다. 올해에는 특히 개별 지도와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일대일 집중 케어와 교육을 하고자 「사랑과 꿈을 심는 기초학력반」 프로그램을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봉사단(퇴임교원 봉사단체)소속 강사님과 동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립대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동부재능업 대학생 멘토가 함께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프로그램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 돌봄교실로 선생님들이 오시면 달려가 안기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동대문구청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되는 「나무돌보미」 봉사를 동아리 형태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에 아이들이 애정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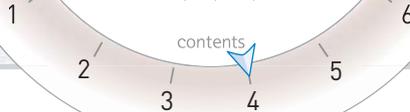
아이들의 고른 성장을 위해 함께 학교로 모이다!

정규교육과정외 모두 끝난 아이들이 늘 마치 에너지가 바로 생성된 듯한 활기찬 인사를 하며 돌봄교실로 들어온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선생님, 오늘은 뭐해요?” 라며 묻는다. 에너지이저가 따로 없다.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여러 명에게 받는 질문이다. 이때 구세주가 나타났다. “친구들이 아직 안 왔으니까

· 전농초 돌봄교실의 요일별 운영 장기 프로그램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프로그램명	예절교실 전통놀이 종이접기 아트클럽 민요장구	경제놀이터 미술 독서 이야기	품성개발 (또래놀이) 오감 특특 텃밭놀이	창의력 쑥쑥 과학교실 캘리그래피 바둑교실 기초학력반	예절교실 나무돌보미 텃밭활동 주제 활동

※2017학년도 6월 월간교육계획 중단기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제외



• 전농초 돌봄교실의 협력기관별 지역연계프로그램(상반기)

지역협력기관 및 단체	프로그램 내용	운영시기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예절교실, 바둑교실, 민요장구	연간
강남시니어클럽	경제놀이터, 종이접기, 캘리그래피, 아트클럽(비즈, 클레이공예)	연간
동대문청소년수련관	품성계발(도레놀이)	4월~9월
서울평생교육봉사단	전통놀이	1학기
IBK행복나눔재단-경희대 아동복지과	창의력 쑥쑥! 과학교실	방학 중
교육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사랑과 꿈을 심는 기초학력반	연간
동대문구청	나무돌보미	연간

※2017학년도 5월 기준

이외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일궈낸 전농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의 활동으로는 동행프로젝트 대학생 봉사자들의 전공을 살려 함께 협의하고 기획해서 만든 창의탐구영역의 건강프로그램 「야미야미야채」, 과학프로그램 「신기한 식물의 세계」가 있고, 서울시와 성대골 마을기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 에너지 뽕뽕 '해요 해로'와 함께 원전하나 줄여요!」 등 창의탐구와 예술표현 영역이 있다.

전농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은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11개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2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마을내 3개 동아리 및 32명의 개인이 재능기부 또는 봉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기타 기업 협력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8개 운영하였으며, 환경교육을 위해 교구, 재료 및 교재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지역의 인력들이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학교로 모인 것은 지역사회의 물질·인적 자원과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힘을 모으고자 노력하는 전농초등학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 나무돌보미 2 전통놀이 3 민요장구



4 캘리그래피 5 예절교실 6 아트클럽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 지역과 공존하고 성장하다!

한 아이를 잘 돌보고 교육하는 것을 학교만의 의무나 권한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공적 영역을 확대하여 마을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전농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입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균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같은 결과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및 성과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함께 더불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은 다시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이들이 지역의 온 세대에 걸친 다양한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그 과정에서 관계와 공존, 나눔과 공유, 존중과 배려, 헌신의 가치를 일부러 강조하고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농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은 앞으로도 계속 지역의 우수한 물질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텃밭은 언제 가는지, 나무돌보미 봉사활동은 언제 가는지, 전통놀이와 아트클럽 선생님들은 언제 오는지 오늘도 궁금해 하고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며 감사함을 알고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방과후학교 소식

● 방과후학교 강사 온라인 연수

- **목적** : 방과후학교 위탁강사의 업무역량 제고
- **내용**
 -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와 운영 - 학생·학부모·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 **신청방법** : 한국교원연수원 홈페이지 (www.hstudy.co.kr)
- **신청기간 및 연수기간**

기수	신청기간	연수기간	이수증출력일
5기	2017.6.28.(수)~7. 5.(수)	2017.6.28.(수)~7.18.(화)	2017.7.19.(수)
6기	2017.7.19.(수)~7.26.(수)	2017.7.19.(수)~8. 8.(화)	2017.8. 9.(수)
7기	2017.8. 9.(수)~8.16.(수)	2017.8. 9.(수)~8.29.(화)	2017.8.30.(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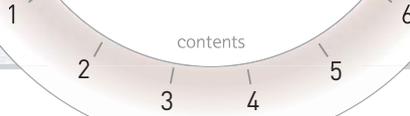
※ 연수는 총 11기로 진행되며(2017.04.05. ~ 2017.11.21.), 각 기수의 연수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정 행사 알림

● 2017 방과후학교 국제포럼

- **목적** : 세계 각국의 방과후학교 운영 경험과 정책 방안 등의 공유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방과후학교의 고유 목적 정립, 효과적 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지역공동체와의 협업 방안 도출
- **일시** : 2017.7.14.(금), 08:50 ~ 18:00
- **장소** : 서울시청 8층
- **주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주관** : 성균관대학교 교육정책연구원, 한국방과후학교학회
- **대상** : 교육부, 해외 초청자 및 발표자, 서울시 도봉구청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알림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9월호 원고 모집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의 정책, 운영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안내 등에 관한 정보공유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2014년 7월부터 웹진 형식으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다양하게 다루고자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대상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기관 종사자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유관 기관 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학계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을 둔 학부모

2 모집 분야

번호	항목	내용
1	전문가칼럼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관계자(전문가) 칼럼
2	현장 속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 소개, 운영현황, 우수사례 등
3	돌봄교실 이야기	•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방과후학교(초등돌봄) 이용후기
4	방과후학교 소식	• 지역별 방과후학교(초등돌봄) 행사 및 연수 안내

3 배포 대상

- 교육부
- 17개 시도 교육청
- 원고 집필자
-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신청자 (교사, 강사, 학부모, 학생 등)

4 제출 방법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 메인화면에서 뉴스레터 원고투고 신청

5 연락처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전보미 연구원(jbomi@kedi.re.kr/043-5309-555)

6 기타

- 제출된 원고는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 선정된 원고의 투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방과후학교 뉴스레터는 발신 전용입니다.
본 메일을 앞으로 수신하지 않으실 분은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집필자의 원고 내용은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